

##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Characteristics and Event Centrality on the Sewol Ferry Disaster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haring -

Yun Mi Lee<sup>1#</sup>, Chol Ok Park<sup>2\*</sup>

<sup>1</sup> Korea Trauma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No. 401 on 4th floor, 36 River Tower, 63-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sup>2</sup> Department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social sharing functions as a mediat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characteristics and event centrality on the Sewol Ferry incident.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of 560 adults aged 20 years and over, and measured their memory characteristics on the Sewol Ferry incident, social sharing, and event centering. A total of 447 responses were analyzed as the final sample. A structural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s, and bootstrapping was also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n model. It was found that, in the model where event centrality w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lationship between vividness and event centrality was partially mediated by social sharing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nsity and event centrality was entirely mediated by social sharing. On the other hand, social sharing did not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event centrality.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effects of social sharing on the recovery from trauma due to the Sewol Ferry incident in the Korean society.

**Key words:** the Sewol ferry incident, autobiographical memory, social sharing, event centrality

### 1. 서론

#### 1. 연구 필요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를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 천안함 침몰, IMF 외환위기 등 우리사회에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 사건과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사회 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시민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그중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위기 사건과 재난이 일반시민들의 심리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집단 외상이 될 수 있는 경험 속에서 공동체의

# The 1st author: Yun Mi Lee, Tel. +82-2-6326-1119, e-mail. [raphael@ewhain.net](mailto:raphael@ewhain.net)

\* Corresponding author: Chol Ok Park, Tel. +82-2-336-2025, e-mail. [truehelper95@naver.com](mailto:truehelper95@naver.com)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논의들은 크게 4가지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세월호 유가족 혹은 그 친구들이 입은 심리적 외상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Park, 2015; Shin, 2016; Park, et. al., 2016).

둘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심리지원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받았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연구와 재난대응 매뉴얼 및 재난심리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왔다(Kim, et. al., 2015; Lee, et. al., 2015a; Lee, et. al., 2015; Lee, 2015; Min, et. al., 2016; Sim, et. al., 2016). 셋째, 세월호 참사에 간접 노출된 일반시민들의 심리적 외상에 주목한 연구들이다(Son, 2014; Jung, 2015; Lee, 2016; Lee, 2016). 넷째,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 이해하고, 회복의 요인을 공동체적 맥락에서 찾고자 수행한 연구들이 있다(Shin, 2015; Moon, et. al., 2016; Min, et. al., 2016; Lee, et. al., 2017; Bang, 2017).

본 연구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회복의 요인으로서 공동체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연구의 흐름에 있다. 사회적 위기 사건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외상 경험으로 작용하는데(Wilson & Keane, 2004) 특히,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들에게 간접외상이 될 수 있는 경험인 동시에, 유가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연대, 그리고 광장 속에서 함께 소통한 경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Shin, 2015; Bang, 2017)기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반 시민들의 삶과 정체성 속에 어떻게 통합되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 관계적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공동체의 심리적 안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주요 변인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이 아이들과 배가 함께 가라앉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본 참사이다. 이로 인해서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노출자 역시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느끼고 가까운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거나 SNS, 광화문 광장, 추모행사장, 책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였다(Shin, 2015; Moon, 2016).

비단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회적 위기 사건으로 인해서 강렬한 정서 체험을 하면 혼란스러운 감각들을 느끼는데 그러한 감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Rimé(1992)는 이것을 ‘사회적 공유(Social Shar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강렬한 정서체험 이후에 사회적으로 공유를 하는 이유는 정서는 인지적 표현이 필요한 압축적이면서도 풀어진 경험이기 때문인데 이때 환경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서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Rimé, et. al., 1992). 이 과정에서 압축적이어서 모호했던 경험은 명료해지고 풀어진 정서(Affect)는 개인의 감각(Sensation), 이미지(Image), 행동(Behavior), 의미(Meaning)들과 함께 통합되어 심리 내적 체계 안에서 소화된다. 이것은 정서에 의해서 도출되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감각들을 사회적 환경인 구성원들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Rimé(1992)는 이러한 사회적 공유가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조절하고 믿음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 까닭은 강렬한 정서 체험이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가진 안전의 기본감각을 훼손하기 때문인데, 훼손된 안전에 대한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외부적 자원인 사회적 구성원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복구된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서적 사건이 주는 모호함을 소화하고 경험을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안전감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 속에 사건이 주

는 의미를 통합시킬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공유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사건의 정서적 영향이 더 강렬할 때와 부정적인 정서일 때라고 선행연구들을 보고한다(Luminet, *et. al.*, 2000). 이때 사람들이 체험하는 정서는 사건에 대한 10개의 기억특성을 측정하는 기억경험질문지(Memory Experiences Questionnaire)로 측정할 수 있는데(Ahn, *et. al.*, 2013) 선행연구에서는 이중 생생함(Vividness), 정서강도(Emotional Intensity), 부정 정서가를 통해서 사회적 위기 사건으로 인한 기억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Lepore, *et. al.*, 2000; Min, 2016)고 보았다. 특히, 극단적인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재난과 같은 경우 사회적 공유는 부정적 정서를 흡수하고 담아내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이후 공동체의 심리적 회복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 리질리언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Min, 2016)고 주장한다. 특히 Herman(2012)은 트라우마 경험을 하게 되면 이후 우리 몸과 마음은 그 압도적인 경험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회복의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그 핵심요소를 ‘안전감’, ‘외상 이야기의 재구성’ 그리고 ‘생존자와 공동체 사이의 연결의 복구’에 있다고 보았다. 이 회복의 프로세스를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사회적 공유’이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개인의 경험 혹은 사회적 재난의 체험을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타당화 될 때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 자신의 내적 경험이 존중받을 때 존재감,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고, 인격을 지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위기사건과 재난이 ‘고립’을 촉진시킨다면 집단에서의 사회적 공유는 ‘소속감’을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사회적 위기 사건과 관련된 직간접적 생존자들이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대해 반복적으로 증언하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들의 고통을 기꺼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생존자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즉 사회적인 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설명

한다(Herman, 2012). 세월호 유가족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공유하고 있음을 경험할 때 안도감을 느끼고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416 Sewol Ferry Writers' Records Group of the Civil Records Commission, 2015). 사회적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역시 ‘사회적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 안에 잘 통합될 때 외상 후 성장도 가능하다고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Shin, 2015).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공유는 생존자들에게 자신들의 고통을 함께 이해받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며 개인의 삶의 정체성에 사회적 위기사건을 통합을 시켜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Lee, *et. al.*, 2015).

이때 어떤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삶에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통합하고 해석하며 중요한 이야기로 구성해 나가는 정도를 사건 중심성(Centrality of Event)이라고 한다(Berntsen & Rubin, 2006, 2007; Lee, 2015). 최근 연구에서 사건 중심성은 외상 후 성장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가기 전에 특정 사건의 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적응여부를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chuettlera & Boals, 2011; Prak, 2015; Lee, 2015; Lee, 2017). Baerger & McAdams(1999)는 사건 중심성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생성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험에 의미를 귀속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기준점으로 기능하며 개인의 정체성 통합에 작용한다고 보았다(Pillemer, 1998). 이러한 주장은 사적 경험을 이야기(Narrative)로 조직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일이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돕는다는 주장과도(Finkenauer & Rimé, 1998) 일치한다. 결국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정체성의 통합과정이라고 볼 때, 사회적 공유는 특정 사건을 개인이 자신의 삶의 맥락과 경험에 동화시켜 나가고 조절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능하면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teffen, 1997). 또한 이렇게 형성된 개인적 기준점을 준거로 개인은 현재의 믿음과 감정을 검증하고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기 위해서 생생한 개인적인 정서적 기억을 사용한다(Rubin, 2005).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접근성이 높고 생생한 개인적인 기억이 우리 삶의 내러티브에 의미와 구조를 부여하고 자신에 대한 개념을 고정하게 만들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다(Pillemer, 1998). 특히,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정체성에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경우 그 기억에 다가가기 용이해지고, 더 활발하게 기억처리를 하고 의미부여를 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Berntsen & Rubin, 2006, 2007). 사건 중심성에 자리 잡는 것이 외상사건일 경우, 개인은 그 외상사건을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이자, 판단근거이자,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때 외상 기억은 더 활성화되어 떠올리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기억이 주는 정서적 영향력은 강화 유지된다고 보았다(Park, 2015).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Lee(2015)은 사회적 위기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중심성은 개인이 얼마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 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주장하였고, 사건 중심성이 높을수록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를 더 활발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기억특성이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이 심리적 외상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위기 사건에서 느끼는 정서적 기억이 강렬할수록 사회적 공유가 늘어나고 (Lee, 2015) 그 과정에서 개인이 공감 받을 때 변연계에서는 정서적 처리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며, 안전한 감각을 회복하고, 이후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주어 사건에 대한 의미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건 중심성이 형성되며 이것은 다시 사건에 대한 정서적 체험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개인이 경험한 외상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적 경험이 타당화 되고 공감을 받을 때, 타인과 안전하게 연결된 감각을 찾을 수 있을 때

시작된다. 또한, 그로 인한 정서 체험에 압도되지 않고 조절이 가능해지는 과정에서 사건 경험은 소화되고 힘의 회복도 가능해지며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역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단 외상을 치유하고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서의 사회적 공유가 개인이 경험한 사회적 위기 사건을 수용하고 공동체의 회복 요인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일반시민들의 심리적 안녕과 성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경험하는 생생하고 강렬한 기억특성(생생함, 정서강도, 부정정서가)이 사건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관계를 ‘사회적 공유’가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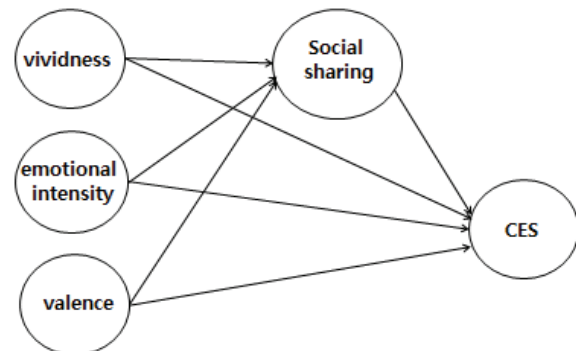


Figure 1. A study model in which dependent variables are event centrality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2월 11일 ~ 2일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세월호 참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변한 전국의 20대 ~ 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웹페이지 형식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설문에 참여하기 이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560명에게 설문 응답을 받았고 설문이 종료된 후 원하는 참가자

Table 1. Frequency analysis for research subjects

Category	Sortat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98	44.3
	Female	249	55.7
Age	21 ~ 30	123	27.5
	31 ~ 40	153	34.2
	41 ~ 50	112	25.1
	51 ~ 60	55	12.3
	61 ~ 70	4	.9
Area	Seoul	256	57.3
	Ansan	30	6.7
	Etc	161	36.0

들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지급하였다. 560명 중 성실하게 응답한 총 4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 지역, 직업 유무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특성(생생함, 정서강도, 부정정서), 사회적 공유, 사건 중심성 등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특정대상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별, 성별, 지역별 할당을 적용하였다. 전체 참가자 연령의 평균은 37.44세, 표준편차는 10.24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기억경험 질문지 (Memory Experiences Questionnaire: 이하 MEQ)

Sutin & Robins(2007)가 자서전적 기억의 현상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MEQ를 개발하였고, Ahn, *et. al.*(2013)가 한국판으로 타당화 하였다. MEQ는 총 10개 영역의 기억특성을 측정하는 6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0개의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생생함(Vividness), (2)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일관성 있게 기억하는 정도인 일관성(Coherence), (3) 사건에 대해서 쉽게 회상하는 정도인 접근성(Accessibility), (4) 사건을 회상할 때 사건 당시 느꼈던 신체적 반응이 회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감각(Sensory detail), (5) 사건과 관련된 정서의 강렬한 정도를 보는 정서강도(Emotional intensity), (6) 사건

에 대해 회상할 때의 조망 시점(Visual perspective), (7) 그 사건의 발생한 연도, 날짜 시간 등을 명확히 기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기(Time perspective), (8) 사건 경험을 타인에게 개방하고 나누는 정도 공유하기(Sharing), (9) 사건을 경험한 자신과 현재 자신을 연결 짓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리두기(Distancing), (10) 사건 경험을 긍정적인 느낌으로 기억하는 정도인 정서가 (Valence)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Lee, 2015) 생생함(6문항), 정서강도(6문항), 정서가(6문항)의 3개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까닭은 통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사하거나 큰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생생함, 일관성, 접근성, 시기 요인은 하나의 요소로 묶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생생함’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명확하다.’,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생생하다.’,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상세하다.’,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흐릿하다.’,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모호하다.’,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불확실하다.’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기’를 물어보는 문항인 ‘그 사건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내 기억이 명확하다.’, ‘그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대한 내 기억이 명확하다.’,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대한 내 기억이 명확하다.’, ‘그 사건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내 기억이 모호하다.’, ‘그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대한 내 기억이 모호하다.’,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대한 내

기억이 모호하다.’와 비교하여 내용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근거하여(Lee, 2015) 하나의 요소로 묶었다. 이밖에 일관성, 접근성, 시기요인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요소로 묶었는데 이 중 생생함이 통계적으로 내적 일치도 값이 가장 크고 대표성이 있어서 선택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 시점인 세월호 참사가 있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접외상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직접적인 외상의 경우에만 답할 수 있는 신체감각, 시점, 거리두기는 배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점’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기억 속에서 나는 나의 눈을 통해 그 경험을 본다.’, ‘내 기억 속에서, 나는 이 경험을 내 눈을 통해 본다.’, ‘내가 이 기억을 시각화 할 때, 나는 이 사건을 내 조망으로 명확하게 본다.’, 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거리두기’의 문항은 ‘지금의 나는 그 기억속의 나와 다르다.’, ‘이 기억 속의 나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 기억을 회상하면, 나는 “저건 지금의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자세한 MEQ의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생함(6문항), 정서강도(6문항), 정서가(6문항)의 3개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가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특성상 긍정 정서가를 묻는 세 문항을 역채점 하여 ‘부정 정서가’로 명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생함과 정서강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Lee, 2017).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생생함은 .971, 정서강도는 .968, 부정 정서가는 .952였다.

## 2) 사회적 공유(Social Sharing)

사회적 공유를 측정하기 위해서 Sutin & Robins (2007)가 개발하고 Ahn, et. al.,(2013)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기억경험질문지(MEQ)의 하위척도 중 공유하기(6문항)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외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사회적 위기 사건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 다시 떠올리는 회상이 일어

날 때 촉발되는 감정 등을 처리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이것을 사회적으로 공유된 언어로 나누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사회적 공유’라고 보았다(Rimé, 1992). Rimé(1992)는 사회적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형식은 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강렬한 정서 반응 이후 사회적 환경의 중요한 구성원들과 그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적인 일에 대한 외부적인 자원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의 대처 노력을 촉진 및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MEQ의 다른 하위 척도들과 구별되는 지점으로 시간적으로 이후에 일어나기에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아왔다(Rimé, et. al., 1992; Lee, 2015). 본 연구도 서론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유는 시간적으로 정서적 체험 이후에 일어나며 사람들은 사회적 공유를 외상 경험 이후에 활용하고 있기에(Rimé, et. al., 1992; Lee, 2015) 매개변인으로 놓았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공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4로 나타났다.

## 3) 사건 중심성(Central Event Scale: 이하 CES)

사건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n & Rubin (2006)이 개발하고 Joe & Lee(2011)가 한국판으로 타당화 한 CES를 사용했다. 총 20문항이고 판단기준점(8문항), 전환점(5문항), 정체성(7문항)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속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9이었고, 판단기준은 .98, 전환점은 .98, 정체성은 .97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자료가 정상분포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값을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 (Chi-Square)검정, TLI(Turker-Lewis Index), CFL(Comparative Fitindex),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함께 반영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4가지를 선택하여 적합도 지수를 해석하였다. CFI와 TLI는 그 값이 .90 이상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간주하며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Hu &

Bentler, 1999)라고 본다. RMSEA의 경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이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다. 아울러, 성별, 연령대, 그리고 지역별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인들의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2. Describ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	The number of ques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kewness	Kurtosis
MEQ							
Vividness	6	4.17	.88	1.50	5.00	-.83	-.24
Emotional intensity	6	4.05	.90	1.00	5.00	-1.02	.68
Valence	6	4.67	.56	1.50	5.00	-2.03	4.76
Social sharing	6	3.71	1.03	1.00	5.00	-.73	-.45
CES	20	3.07	1.33	1.00	5.00	-.21	-1.35
Reference point	8	3.21	1.39	1.00	5.00	-.27	-1.31
Identity	7	3.00	1.32	1.00	5.00	-.10	-1.29
Turning point	5	2.93	1.43	1.00	5.00	-.02	-1.42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ccording to gender

Measurement variable	Gender		Age					Area		
	Male	Female	20's	30's	40's	50's	60's	Seoul	Ansan	etc
	n=198	n=249	n=123	n=153	n=112	n=55	n=4	n=256	n=30	n=161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Vividness	4.32±.90	4.04±.92	4.04±.88	4.20±.98	4.24±.87	4.22±.96	4.13±.85	4.19±.88	4.46±.89	4.06±.84
Emotional intensity	4.18±.89	3.94±.92	3.95±.89	4.08±.78	4.11±.80	4.07±.91	4.13±.87	4.05±.84	4.51±.83	3.96±.81
Valence	4.64±.66	4.69±.55	4.74±.70	4.71±.64	4.63±.63	4.54±.65	4.75±.70	4.66±.71	4.83±.62	4.67±.65
Social sharing	3.90±1.06	3.54±1.05	3.56±1.11	3.80±.99	3.87±1.14	3.58±1.02	1.88±1.06	3.79±1.12	3.32±1.06	3.63±1.03
CES	1.97±1.39	1.94±1.32	1.75±1.33	1.85±1.46	1.99±1.38	2.08±1.50	1.91±1.34	1.06±1.21	1.61±1.32	1.98±1.36
Reference point	2.51±1.36	2.22±1.30	2.03±1.31	2.35±1.36	2.33±1.30	2.49±1.40	2.28±1.34	1.06±1.31	2.12±1.31	2.24±1.35
Identity	1.06±1.34	1.13±1.31	1.31±1.30	1.13±1.36	1.14±1.32	1.06±1.33	1.01±1.35	0.75±1.33	1.07±1.37	1.04±1.35
Turning point	2.98±1.39	2.84±1.42	2.18±1.23	2.85±1.46	2.87±1.39	3.10±1.430	2.90±1.38	1.95±1.31	2.81±1.42	2.97±1.39

Table 4. The total of correlation coefficient of major variables

	1	2	3	4	5	5-1	5-2	5-3
1. Vividness	1							
2. Emotional intensity	.798**	1						
3. Valence	.476**	.487**	1					
4. Social sharing	.615**	.611**	.362**	1				
5. CES total	.675**	.648**	.361**	.773**	1			
5-1. CES reference point	.655**	.632**	.355**	.775**	.980**	1		
5-2. CES identity	.667**	.632**	.369**	.735**	.968**	.918**	1	
5-3. CES turning point	.641**	.621**	.316**	.731**	.958**	.917**	.891**	1

1. Vividness 2. Emotional intensity 3. Valence 4. Social sharing  
5. CES total 5-1. CES reference point 5-2. CES identity 5-3. CES turning point

\*p<.05, \*\*p<.01, \*\*\*p<.001

###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인 기억특성(생생함, 정서강도, 부정정서), 사회적 공유, 사건 중심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가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서강도와 사회적 공유 역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r=.611, p<.01$ ). 부정 정서와 사회적 공유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62, p<.01$ ). 생생함과 사건 중심성 ( $r=.675, p<.05$ )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강도와 사건 중심성( $r=.648, p<.01$ )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부정 정서와 사건 중심성( $r=.361, p<.01$ )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 3. 측정모형 검증

종속변인이 사건 중심성인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생함, 정서 강도, 부정정서, 사회적 공유, 사건 중심성은 잠재변수이다.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CFI와 TLI 값은 .90 이상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간주하며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Hu & Bentler, 1999)로 여겨진다. RMSEA의 경우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로 해석된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이를 기준으로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99.707, df=80, RMSEA=.077, CFI=.980, TLI=.974$ ).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일 때에 수렴 타당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며, .40 이상이어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Hair, et. al., 1992).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인이 사건 중심성인 경우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생생함 .921~.995, 정서강도 .972~.993, 부정정서 .835~1.040, 사회적 공유 .926~.970, 사건 중심성 .942~.973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로 잠재변수를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렴타당도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측정하였다. AVE 값이 0.5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해석을 하는데,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Table 5. Total measurement model agreement in which the dependent variable is central event

$\chi^2$ (df)	TLI	CFI	RMSEA
299.707(80)	.974	.980	.077

Table 6. Ave value by variable

Variables	Vividness	Emotional intensity	Valence	Social sharing	CES
AVE	.791	.788	.720	.699	.852

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본 모형은 수렴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6>). 아울러,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제곱값을 살펴보면 생생함과 정서강도 간 상관계수가 0.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4> 상관분석 결과),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과 비교해보면 평균분산추출값이 모두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판별타당도 역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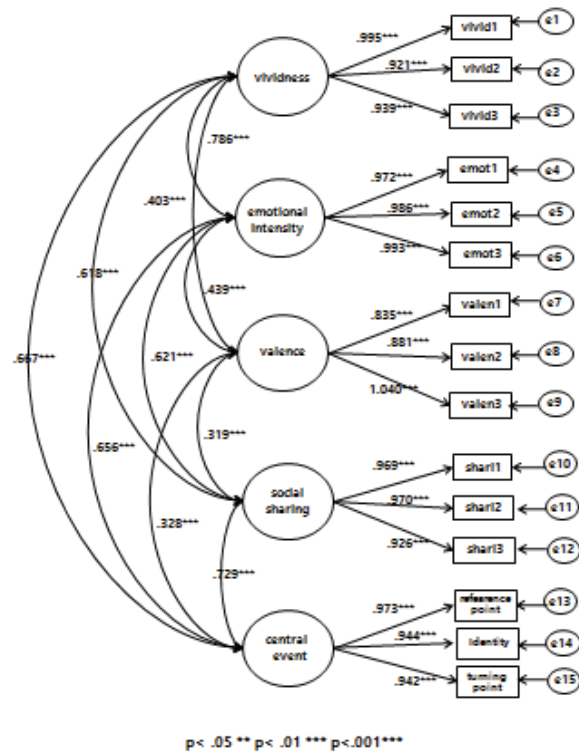


Figure 2. A measurement model in which the dependent variable are event centrality

4.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은 사회적 공유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특성(생생함, 정서강도, 부정정서)과 사건 중심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인이 사건중심성인 연구모형의 적합

도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299,707, df = 80, RMSEA = .077, CFI = .980, TLI = .974, RMR = .310, NFI = .954, AGFI = .810$ ).

Table 7. Suitability of the study model in which the dependent variable is event-oriented

$\chi^2$ (df)	TLI	CFI	RMSEA	RMR	NFI	AGFI
299.707(80)	.974	.980	.077	.310	.954	.810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Figure 3>을 통해서 모든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3의 종속변인이 사건중심성인 모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정 정서가에서 사회적 공유로 가는 경로와 부정 정서가에서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정서강도에서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직접경로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경로들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생함에서 사회적 공유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beta = .336, p < .001$ )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생함에서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직접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beta = .197, p < .001$ ),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정서강도에서 사회적 공유로 가는 직접경로도 나타났다. 정서강도에서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공유에서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직접경로도 유의했으며( $\beta = .342, p < .001$ ),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강도에서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공유에서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직접경로도 유의했다( $\beta = .585, p < .001$ ). 다섯째, 부정 정서가에서 사회적 공유로 가는 경로와 부정 정서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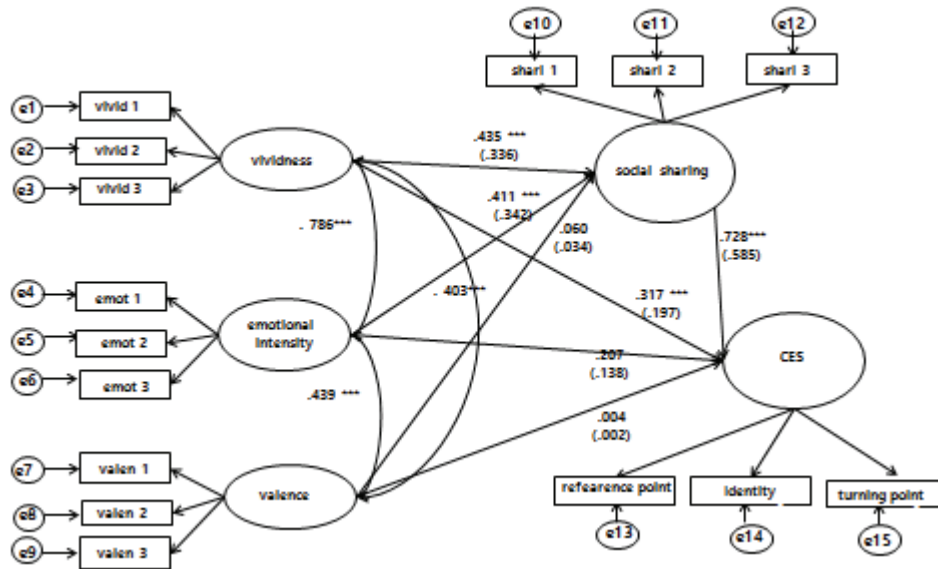


Figure 3. A measurement model in which the dependent variable are event centrality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매개효과 검증

Preacher & Hayes(2004)가 제시한 부트스트래핑 방

법을 사용하여 간접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원자료(N=447)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부트스트랩 자료 표본을 모수추정에 이용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간접효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Table 8. The mediating effect of research model Intermediary effect of research model

Path	Indirect effect	95% confidential interval	
		lower	upper
Vividness → Social sharing → CES	.317***	.202	.458
Emotional intensity → Social sharing → CES	.300***	.189	.416
Valence → Social sharing → CES	.044	-.034	.135

IV. 논의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관련 법령 개정’ 및 ‘재난 지원 체계 개선’ 같은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나(Moon, 2016) 사회적 위기 사건 이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세월호 6주기를 맞는 2020년. 우리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라는 또 다른 사회적 재난 속에 놓여있고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된 상호의존적인 존재인지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

다(Moon, 2020).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소통방식이 어떻게 이뤄져야 타인 및 공동체에게 2차 외상을 주지 않고 치유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 소통의 방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한 까닭은 생존자들은 그들과 같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잃어버린 자기의 일부를 인식하고 회복해 나가기 때문이며, 연결된 감각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집단은 공포와 절망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책을 그리고 외상 경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Herman, 2012).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정책적 연구 관련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SRQ) 연구

우선 첫째로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SRQ)’ 등을 활용해서 세월호 같은 사회적 위기 사건 이후 사회적 공유의 내용에 따라 개인 및 집단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의 공유들이 외상을 줄이고 공동체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유용한 반응의 내용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 2. 2차 외상을 줄이는 사회적 공유 방식의 가공 및 보급

둘째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기 사건에서 2차 외상이나 PTSD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공유 내용을 연구 및 정리해서 영상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기를 제안한다.

### 3. 사회적 위기 사건 이후 심리적 응급처치 방법을 국민에게 전달 및 교육

셋째로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위기 사건이 국민들의 심리적 현실과 정체성에 통합되어 가는 것이 검증된 만큼, 앞으로 사회적 위기 사건 직후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건강을 안정화 시키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보급시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 현장에서 개인 및 집단 트라우마 치료에서 활용하는 신체각성수준 조절 훈련, 그라운드링, 안전지대 만들기, 자기자비 치료 같은 근거기반 치료들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 4. 심리적 응급처치 보급 관련 컨트롤 타워 마련의 필요성

넷째,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 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령, 최근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위기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재난 경험을 소화시키기 위해 심리적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 <재난정신건강 정보센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재난과 트라우마위원회> 등에서 <감염병 마음건강 지침>, <소아청소년을 위한 감염병 재난 시 마음지침서> 등을 제작 배포하는 귀한 노력을 하였다. 국민들의 심리적 방역을 위한 자료들을 배포한 것인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이러한 노력들이 어떤 명확한 컨트롤 타워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국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거나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과 연구들이 이뤄져서 사회적 위기 사건 이후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V. 결론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국민들은 이 참사의 기억을 자신의 삶과 정체성 속에 어떤 심리사회적 과정을 거쳐 통합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있다. 또한 간접 외상으로서의 세월호 참사를 심리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사회적 공유가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공유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특성(생생함, 정서강도, 부정정서)과 사건 중심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인이 사건 중심성인 모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특성은 사회적 공유를 통해 사건 중심성을 촉진시키는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생함이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공유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월호 참사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할수록 사회적 공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건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사건 중심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강도가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공유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강렬한 정서를 경험했을수록 사회적 공유가 촉진되고 그로 인해 세월호 참사를 개인의 삶과 정체성 판단기준이자 전환점으로 자리 잡는 사건 중심성이 높아지지만 강렬한 정서를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사건 중심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서전적 기억특성과 사회적 공유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의 약 90% 이상을 타인과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정서를 조절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Rimé, *et. al.*, 1992). 또한 그렇게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경우 사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한다는 주장과도 부합한다(Rimé & Finkenauer, 1998). 반면, 부정정서가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공유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지 않았으며, 부정 정서가 사건 중심성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과 소통하는 사회적 공유가 일어나지는 않고 사건중심성도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타인과 소통하게 된다는 국외 연구들(Croonenbergh, *et. al.*, 1990)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한국의 위기사건에 대한 Lee(2015)의 연구결과 중 지각된 직접노출집단의 특징과는 일부 일치한다. 즉, 우리나라 같이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보편적인 서구와 달리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공유를 덜 하게 된다는 것이다(Matsumoto, *et. al.*, 1998; Singh-Manoux & Finkenauer, 2001; Lee, *et.*

*al.*, 2009). 한편 자서전적 기억 특성의 가장 상위 차원에 있는 것이 전체 기본인데 이것은 각각의 정서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은 경험들이 정서의 차원에서 하나로 수렴되는 현상을 설명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Conway & Pleydell-Pearce, 2000; Linton, 1986; Kim, 1993). 즉, 부정적인 사건을 겪었다는 것만으로 사건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생하고 강렬한 정서강도 등과 함께 통합적인 자서전적 기억특성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개인은 외상경험을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부분으로 해석하는 정도가 활성화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생생하고 정서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하였다라고 기억할수록, 그 기억을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이 촉진되고, 이후 자신의 삶의 판단근거나 전환점이 되거나 정체성에 중요한 의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 것만으로 사건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부정 정서는 생생하고 강렬한 정서적 경험과 함께 자서전적 기억특성으로 수렴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강렬한 정서 체험을 하거나 생생함을 느꼈다고 기억할수록, 그 기억을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이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검증되었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정정서를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과의 공유가 촉진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부정 정서의 단독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부정 정서는 생생함이나 정서강도와 함께 수렴되어 다른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경험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뒤 나타나는 유기체의 복원을 위한 시도이자(Levine, 2016) 자신의 정체성 속에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며 트라우마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모형은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징상 인

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으로 표집이 제한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논문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개인이 삶에서 겪었던 다른 외상 사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다. 향후 연구에서 사회관계적 속성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심도 깊고 다층적이며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위기 사건은 개인의 심리적 현실 및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주며 과거에 외상 사건 경험이 있을 경우 촉발계기가 되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트라우마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제하여 조절 변인으로 놓고 그 조절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가 추후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3년이 되어가는 2017년 2월 11일~2월 25일 동안에 진행되었던 바, 참사 시점과 연구 시점 간 시간상 격차를 감안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위기 사건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 특히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기사건이 사회적 공유라는 행동을 통해 개인의 심리내적 세계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지적 통합과정에 사회적 공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현재 시점의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 과거 사건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조절된 매개모형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심도 있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TV,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노출된 사회적 위기 사건이다. 이에 노출된 정도가 국민들의 심리

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공유하는 방식, 즉 언어적으로 이뤄진 직접적 의사소통인지 SNS에 공유한 것인지, 직접 오프라인 공간에 참여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규명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공유한 것인지에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현실에 미친 영향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형을 기반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서경험 이후 이를 언어적 방법을 통해 사회적 공유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통합해 나가는 사건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섯째, 외상 사건으로 인한 경험을 타인들과 공유하는 행동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Ahn, *et. al.*(2013)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기억경험질문지(MEQ)의 하위척도 중 공유하기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공유는 공유하는 방식이 이야기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에 국한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의 방식 이외에도 SNS, 집회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공유가 가능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정도를 측정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미는 우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개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판단근거이자, 전환점으로, 정체성으로 통합시키 나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규명했다는 데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시선을 확장해 사회 관계적 속성을 고려한 모델을 통해서 이해하고, 치료의 요인 역시 ‘사회적 공유’라는 사회 관계적 속성 주목하였다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위기 사건은 개인의 비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간접 외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향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공동체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세월호의 아이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는 공동체

의 일원이 되기를, 또한 건강한 방식의 사회적 공유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 References

- Ades, Alberto and Rafael Di Tella. 1997. National Champions and Corruption: Some Unpleasant Interventionist Arithmetic. *The Economic Journal*. 107(July): 1023-1042.
- Ahn, Hyun Nie, Hye Sun Joo, Ki Sun Sim, and Ji Won Min. 2013. Validation of the Memory Experience Questionnaire in a Korean popul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401-422.
-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ang, Hyi Jo. 2017. The Power of Communal Healing in Sewol Ferry Square. *Yonsei Journal of Counseling and Coaching*. 11(7): 81-103.
- Beiser, M., O. Wiwa, and S. Adebajo. 2010. Human-initiated Disaster, Social Disorganiz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bove Nigeria's Oil Basins. *Social Science & Medicine*. 71(2): 221-227.
- Berntsen, D. and D. C. Rubin. 2006.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2): 219-231.
- Berntsen, D. and D. C. Rubin. 2007. When a Trauma Becomes a Key to Identity: Enhanced Integration of Trauma Memories Predict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4): 417-431.
- Boals, A., J. M. Steward, and D. Schuettler. 2010.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Posttraumatic Growth by Considering Event Centralit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6): 518-533.
- Boals, A. and D. Schuettler. 2011a. A Double-edged Sword: Event Centrality PTSD and Posttraumatic Growth.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 817-822.
- Boals, A. and D. Schuettler. 2011b. The Path to Posttraumatic Growth Versu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ntributions of Event Centrality and Cop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ress & Coping*. 16(2): 180-194.
- Bolton, Glenn, Orsillo, Roemer, and Litz.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eace Keepers Deployed to Somali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3): 203-210.
- Brewin, C. 2008. Traumatic Events Should Meet Either Criterion A1 or A2 Not Both. Paper Presented at the 24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Chicago, IL.
- Bride, B. E. 2007. Prevalence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Social Workers. *Social Work*. 52(1): 63-70.
- Browne, M. W. and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A: Sage: 136-162.
- Cho, Myeong Sook, and Young Ho Lee. 2011. A Validation Study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3): 763-774.
- Christophe, V. and B. Rimé. 1997. Exposure to the Social Sharing of Emotion: Emotional Impact, Listener Responses and the Secondary Social Shar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37-54.
- Conway, M. A. and C. W. Pleydell-Pearce. 2000. The Constru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the Self-memory System. *Psychological Review*. 107: 261-288.
- Conway, M. A. 2005. Memory and the Self.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3(4): 594-628.
- Croonenbergh, A., B. Rimé, S. Boca, and P. Philippot. 1990. *Partage Social et Ruminant Mentale Dans une Population Méditerranéenne: Comparaison de Sujets Dépressifs et de Sujets Normaux*. Louvain-la-Neuve: University of Louvain.
- Danieli, Y. 2009. Massive Trauma and the Healing Role of Reparative Justi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5): 351-357.
- Figley, C. R. 1995. Compassion as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An Overview. In C. R. Figley. ed.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runner/Mazel.
- Foa, E. B., L. Cashman, L. Jaycox, and K. Perry. 1997.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 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9(4): 445-451.
- Hair, J. F.,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1992. *Multi Variate Data Analysis*. 3rd ed. New York:

- Macmillan.
- Halligan, S. L., T. Michael, D. M. Clark, and A. Ehlers. 200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Assault: The Role of Cognitive Processing, Trauma Memory, and Appraisa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419-431.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Herman, J. L. 2012. Hyeon Jeong Choe, Translation. *Trauma and Recovery: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Seoul: Open Books.
- Hu, L. T. and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Jeong, Ui Mun. 2015. Indirect Trauma Response by Media Exposure of Sewol Ferry Disaster in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rauma-related Negative Beliefs as Moderating Variables. A Master's Degree. Daegu University.
- Joo, Hye Sun and Hyun Nie Ahn.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osttrauma Risk Checklis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1): 235-257.
- Kim, Don Gil and Yun Hee Lee, Kim Kyoung Eun, and Jee Young Ahn. 2015. Analysis of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Guidelines: Introduction of Multiple Guidelines for PTSD.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3):473-494.
- Kim, Soo Youn. 1993. Autobiographical Memor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2: 1-18.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won, Jun Su, Jae Jin Kim, and Gi Nam Koong. 201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esk Reference to the Diagnostic Criteria from DSM-5*. Seoul: Hakkkisa.
- Ko, Kil Kon and Sue Yeon Cho. 2017. How Do Corruption Experienced Citizens Understand Causes of Corrupt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8(1): 31-56.
- Kyo, Heon Kim. 1992. Functions of Self-disclosu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81-107.
- Lee, Na Bin, Moon Kyung Min, Hyun Nie Ahn, and Hye Jung Cheon. 2015.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ha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Characteristics and Event Centrality Regarding Social Crisis: Comparison between Perceived Direct Exposure Group and Indirect Exposure Group.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9(3): 23-44.
- Lee, Na Bin, Ki Sun Sim, Sang Woo Hahn, Kan Guk Lee, Min Young Sim, Jeon Gho Chae, and Hyun Nie Ahn. 2015a.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Reports of Mental Health Service Providers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in Korea.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43(4): 116-144.
- Lee, Don Gun, Ji Young Shin, and You Jin Kim. 2015. A Life History of the Female Counselor's Participated in Sewol Ferry Disaster Counseling.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3): 369-400.
- Lee, Eun Kyoung, Eun Kook Suh, Thai Chu, Heejung S. Kim, and David K. Sherman. 2009. Is Emotion Suppression That Bad Comparing the Emotion Sup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Link in Two Culture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1): 131-146.
- Lee, Heung Pyo, Yun Kyeung Choi, Jae Ho Lee, and Hong Seock Lee. 201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Indirect Trauma Exposure through the New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2(3): 411-430.
- Lee, Yun Mi. 2017. The Relationship among Memory Characteristics on the Sewol Ferry Incident and Event Centrality and PTS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haring. A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 Lepore, S. J., J. D. Ragan, and S. Jones. 2000. Talking Facilitates Cognitive-emotional Processes of Adaptation to an Acute Stress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99-508.
- Levine, P. A. 2016. Huia Yang, Translation. *Waking the Tiger Healing Trauma*. Seoul: Soulmate.
- Linton, M. 1986. Ways of Searching and the Contents of Memory. In D. C. 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67.
- Luminet, O., P. Bouts, and F. Delie. 2000. Social Sharing of Emotion

- Following Exposure to a Negatively Valenced Situation. *Cognition and Emotion*. 14(5): 661-688.
- Matsumoto, D., S. Takeuchi, S. Andayani, N. Kouznetsova, and D. Krupp. 1998. The Contribution of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to Cross National Differences in Display Rul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7-165.
- McMahon, C. 2001. Covering Disaster: A Pilot Study into Secondary Trauma for Print Media Journalists Reporting on Disaster.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16(2): 52.
- Min, Ji Won, Hye Sun Joo, and Hyun Nie Ahn. 2016. Understanding Voluntary Disaster Workers with Their Burnout Pattern and the Group Differences i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World Assumption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2(3): 363-385.
- Min, Moon Kyung, Hye Sun Joo, and Hyun Nie Ahn. 2016. Differences in Social Sharing and Community Resilience after Disaster among Social Empathy Latent Class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6): 183-204.
- Moon, Hee Jeong, Hye Sun Joo, and Hyun Nie Ahn. 2016. An Analysis of the Commemorative Phenomenon about Traumatic Loss Caused by a Disaster: Case of Sewol Ferry Disaster. *Crisisonomy*. 12(6): 15-31.
- Moon, Jae In. 2020. Sewol Ferry Sixth Anniversary of Presidential Speech.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497>
- Park, Gi Muk. 2015. A Technical Approach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the Sewol Ferry Victims' Par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5(9): 134-145.
- Park, So Yoon. 2015.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ity of Event and Posttraumatic Growth.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5): 141-155.
- Pillemer, D. B. 1998. *Momentous Events, Vivid Memories: How Unforgettable Moments Help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Our Live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reacher, K. J. and A. F. Hayes.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imé, B., P. Philippot, S. Boca, and B. Mesquita. 1992. Long Lasting Cognitive and Socail Consequences of Emotion: Social Sharing and Rumina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 225-258.
- Rimé, B., C. Finkenauer, O. Luminet, E. Zech, and P. Philippot. 1998. Social Sharing of Emotion: New Evidence and New Question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9: 145-189.
- Rubin, D. C. 2005. A Basic-systems Approach to Autobiographical Memo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2): 79-83.
- Rubin, D. C., D. Berntsen, and M. K. Bohni. 2008. A Memory-based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valuating Basic Assumptions Underlying the PTSD Diagnosis. *Psychological Review*. 115(4): 985-1011.
- Schuetzler, D. and A. Boals. 2011. The Path to Post Traumatic Growth Versu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Contributions of Event Centrality and Cop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ress & Coping*. 16(2): 180-194.
- Singh-Manoux, A. and C. Finkenauer. 2001. Cultural Variations in Social Sharing of Emotions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6): 647-661.
- Smeets, T., T. Giesbrecht, L. Raymaekers, J. Shaw, and H. Merckelbach. 2010. Autobiographical Integration of Trauma Memories and Repressive Coping Predict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Undergraduate Student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7(3): 211-218.
- Seo, Young Seok, Hwa In Cho, Ha Yan An, and Jung Sun Lee. 2012.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by South Koreans: Types and Prevalenceq.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3): 671-701.
- Shin, Na Ra. 2015. The Study of Posttraumatic Growth of a Communities Who Experienced an Indirect Trauma through the Sewol Ferry Disaster: Role of Counselors as Social Supports in Systemic Approach. *Yonsei Journal of Counseling and Coaching*. 11(3): 131-153.
- Sim, Ki Sun, Hye Sun Joo, and Hyun Nie Ahn. 2016. The Effect of Disaster Activities on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44(2): 113-139.
- Sohn, Seung Hee. 2014. Study of Indirect Trauma and Related

- Variables by Social Traumatic Event to the Adolescence: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269-294.
- Steffen, V. 1997. Life Stories and Shared Experi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45(1): 99-111.
- Sutin, A. R. and R. W. Robins. 2007. Phenomenology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The Memory Experiences Questionnaire. *Memory*. 15(4): 390-411.
- Van Der Kolk, B. A. and R. Fisler. 1995. Dissociation and the Fragmentary Nature of Traumatic Memories: Overview and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4): 505-525.
- Wolynn, M. 2016. Ji In Jeong, Translation. *It Didn't Start with You How Inherited Family Trauma Shapes Who We Are and How to End the Cycle*. Seoul: Simsim.
- Wilson, P. and T. M. Keane. 2004.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416 Sewol Ferry Writers' Records Group of the Civil Records Commission. 2015. *Come Back on Friday: 240 Day of Sewol Ferry Family Cultivation Records*. Seoul: ChangBee.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고길곤, 조수연. 2017.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대한 인식의 관계: 관계의 시점 간 안정성과 효과크기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 31-56.
- 권준수, 김재진, 남궁기. 2015.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서울: 학지사
- 김교현. 1992.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1): 81-107.
- 김동일, 이윤희, 김경은, 안지영. 2015. 재난대응 정신건강, 위기 상담 가이드라인의 분석: 트라우마 개입의 중다 지점을 위한 서설. *상담학연구*. 16(3):473-494.
- 김수연. 1993. 자전적 기억: 기억연구의 새로운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12: 1-18.
- 문재인. 2020. 세월호 6주기 대통령 연설문.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497>.
- 문희정, 주혜선, 안현의. 2016.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에 대한 추모 현상 분석: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 12(6): 15-31.
-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6. 사회적 공감 잠재계층 분류에 따른 재난 이후 사회적 공유와 공동체 리질리언스의 차이. *상담학연구*. 17(6): 183-204.
- 민지원, 주혜선, 안현의. 2016. 재난 자원봉사인력의 소진 양상에 따른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세상에 대한 신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63-385.
- 박기묵. 2015.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134-145.
- 박소운, 정남운. 2015. 사건중심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분석. *상담학연구: 상담일반*. 16(5): 141-155.
- 방희조. 2017. 세월호 광장의 공동체적 치유의 힘. *연세상담코칭연구*. 11(7): 81-103.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71-701.
-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 신나라. 2015. 세월호 사건으로 간접외상을 경험한 공동체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체계적 접근에서 사회적 지지로서의 상담사의 역할. *연세상담코칭연구*. 11(3): 131-153.
- 신명진. 2016. 세월호 유가족의 사별경험.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심기선, 주혜선, 안현의. 2016. 정신건강 전문가의 재난지원활동 여부에 따른 공감 만족, 소진, 간접외상스트레스,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4(2): 113-139.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7: 217-231.
- 안현의, 주혜선. 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69-887.
- 안현의, 주혜선. 20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자서전적 외상 기억의 조직화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197-220.
- 안현의, 주혜선, 심기선, 민지원. 2013. 한국판 기억 경험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4(1): 401-422.
- 왕애경. 2017. 간접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과 외상 후 성장: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나빈, 민문경, 안현의, 천혜정. 2015. 한국의 사회적 위기사건에 대한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

- 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23-44.
- 이나빈, 심기선, 한상우, 이강욱, 심민영, 채정호, 안현의. 2015a. 세월호 참사 후 재난심리지원 실무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재난심리지원체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4): 116-144.
- 이나빈, 주혜선, 안현의. 2017. 일반인의 세월호 참사 간접 경험으로 인한 신념체계와 안녕감 간 관계에서 집단역량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3): 37-60.
-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5. 세월호 재난상담에 참여한 여성상담자의 성장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369-400.
-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6.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89-120.
- 이수아. 2016. 고등학생의 간접외상 수준에 따른 사회적 관심, 정서표현, 정서인식의 차이: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수지. 2015. 재난현장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윤미. 2017.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특성과 사건중심성 및 간접외상 간의 관계: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경, 서은국, Thai Chu, Heejung S. Kim, David K. Sherman.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정의문. 2015. 세월호 사건 매체노출이 대학생들에게 미친 간접외상에 대한 연구: 외상관련 부정적 신념과 회복탄력성을 조절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조명숙, 이영호. 2011. 사건중심적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63-774.
- 주혜선, 안현의. 2008.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235-257.
-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2015.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서울: 창비.

Received: Apr. 24, 2020 / Revised: Jul. 23, 2020 / Accepted: Jul. 23, 2020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간 관계

-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56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특성과 사회적 공유, 사건 중심성을 측정하고 그중 44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 모형 분석을 하였고,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종속변인이 사건 중심성인 모델의 경우 사회적 공유가 생생함과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강도와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공유는 부정 정서가와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리사회 공동체의 회복에 사회적 공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세월호 참사, 자서전적 기억, 사회적 공유, 사건중심성

**Profiles** **Yun Mi Lee** : She received her M.A.,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17. She is interested in trauma and crisis counseling, social disasters, and solidarity of civic communities, and is conducting counseling and lecture research at the Korea Trauma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e(raphael@ewhain.net).

**Chol Ok Park**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15. She is a adjunc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6.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trauma, emotional regulation, posttraumatic growth(truehelper95@naver.com).

Appendix 1. Memory Experience Questionnaire in a Korean population (K-MEQ)

※ 다음의 문항은 당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며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 (R) = 역채점 문항3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생생함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명확하다.					
2.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생생하다.					
3.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상세하다.					
4.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흐릿하다. (R)					
5.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모호하다. (R)					
6.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불확실하다. (R)					

(정서강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내가 지금 그 사건에 대해 회상 할 때 매우 강렬한 감정들이 떠오른다.					
2. 그 사건과 관련한 내 감정들은 매우 강렬하다.					
3. 그 사건에 대한 그 기억은 강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4. 나는 그 사건 당시의 감정들이 특별히 강하다고 기억하지 않는다. (R)					
5. 나는 그 기억에 관해 강한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R)					
6. 그 기억은 나에게 강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R)					

(정서가(=부정정서)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그 기억의 전반적인 톤은 긍정적이다.					
2. 이 기억에서 묘사된 그 경험은 긍정적이다.					
3. 그때 내 느낌들은 긍정적이었다.					
4. 그 기억의 전반적인 톤은 부정적이다. (R)					
5. 이 기억에서 묘사된 그 경험은 부정적이다. (R)					
6. 그때 내 느낌들은 부정적이었다. (R)					

(공유하기 (한국판 기억 경험 질문지 중 하위척도) = 사회적 공유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이 기억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자주 나눈다.					
2.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나는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다.					
3.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한다.					
4. 나는 이 기억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다. (R)					
5. 나는 이 기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R)					
6. 나는 이 기억에 관해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 (R)					

Appendix 2. Centrality of Event Scale (CES)

※ 앞에서 언급된 당신이 경험한 고통스러웠던 사건(세월호 참사)을 떠올려 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한다.					
2. 나는 현재의 삶에서 이 사건과 연결되거나 닮은 점들을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					
3. 이 사건은 내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					
4. 이 사건은 내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상징하고 표시한다.					
5. 이 사건으로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살고 있다.					
6. 나는 내 자신과 세상을 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한다.					
7. 이런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나와는 다를 것이다.					
8. 사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9. 나는 현재의 관계에서 이 사건과 연결되거나 닮은 점을 자주 보게 된다.					
10. 이 사건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11. 이런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은 나와는 다를 것이다.					
12. 이 사건은 내가 다른 경험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13. 나는 이 사건에 비추어 나의 앞날을 생각한다.					
14.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쓴다면, 이 사건은 그 중심에서 다른 많은 경험들로 이어질 것이다.					
15. 내 삶의 이야기는 크게 이 사건 이전과 이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6. 이 사건은 내 삶을 영구적으로 변하게 했다.					
17. 나는 이 사건이 내 미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자주 생각한다.					
18. 이 사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19.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20. 나는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사건을 자주 돌아본다.					

Appendix 3. Memory Experience Questionnaire in a Korean population (K-MEQ)

※ 다음의 문항은 당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을 떠올리며 다음에 해당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중에서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 (R) = 역채점 문항

(생생함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명확하다.					
2.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생생하다.					
3.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상세하다.					
4.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흐릿하다. (R)					
5.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모호하다. (R)					
6.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불확실하다. (R)					

(일관성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그 기억에서 사건들의 순서가 명확하다.					
2. 이 기억을 떠올릴 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가 사실적으로 여겨진다.					
3. 이 기억은 여러 사건이 합쳐지거나 섞인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된다.					
4. 나는 그 일이 일어난 장소를 기억한다.					
5. 그 기억에서 사건들의 순서가 혼란스럽다. (R)					
6. 이 기억은 비논리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채 조각난 파편들처럼 떠오른다. (R)					
7. 이 기억은 특정 사건에 대한 하나의 기억이라기보다 여러 유사한 사건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R)					
8. 나는 그 사건을 일관되게 회상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 (R)					

(접근성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내가 위의 지시문들을 읽었을 때 이 기억은 바로 내 마음에 확 떠올랐다.					
2. 이 기억은 내가 회상하기 쉬웠다.					
3. 이 기억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R)					
4. 나는 잠시 동안 생각한 이후에야 이 사건을 회상할 수 있었다.(R)					
5. 나는 이 경험에 관한 내 기억을 한참 더듬어 떠올려야 했다.(R)					

(신체감각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내가 그 사건을 회상할 때, 마치 그 당시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2. 내가 그 사건을 회상할 때, 나는 내가 그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지금 느끼는 것만 같다.					
3. 그 기억을 떠올리면 온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4. 그 사건을 회상할 때, 나는 그 사건 당시에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도 떠오른다.					
5. 내가 이 기억을 회상할 때, 나는 실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느낀 것과 같은 느낌들을 느끼지 않는다.(R)					
6. 내가 이 사건을 회상할 때, 내가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R)					
7. 그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그다지 감각적이지는 않다(예. 소리, 냄새, 맛 등이 느껴지지 않음). (R)					
8. 그 사건을 회상할 때 나는 그 경험 당시의 특정 신체적 반응과 감각들을 떠올리기 어려운 때가 있다. (R)					

(정서강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내가 지금 그 사건에 대해 회상 할 때 매우 강렬한 감정들이 떠오른다.					
2. 그 사건과 관련한 내 감정들은 매우 강렬하다.					
3. 그 사건에 대한 그 기억은 강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4. 나는 그 사건 당시의 감정들이 특별히 강하다고 기억하지 않는다. (R)					
5. 나는 그 기억에 관해 강한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R)					
6. 그 기억은 나에게 강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R)					

(시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기억 속에서 나는 나의 눈을 통해 그 경험을 본다.					
2. 내 기억 속에서, 나는 이 경험을 내 눈을 통해 본다.					
3. 내가 이 기억을 시각화 할 때, 나는 이 사건을 내 조망으로 명확하게 본다.					
4. 나는 이 기억을 마치 내가 그 경험의 관찰자였던 것처럼 본다. (R)					
5. 내 기억에서, 나는 타인들의 눈을 통해 이 경험을 본다. (R)					
6. 이 사건을 내가 회상할 때, 나는 내 자신을 관찰하는 관찰자처럼 느낀다. (R)					

(시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그 사건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내 기억이 명확하다.					
2. 그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대한 내 기억이 명확하다.					
3.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대한 내 기억이 명확하다.					
4. 그 사건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내 기억이 모호하다. (R)					
5. 그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대한 내 기억이 모호하다. (R)					
6.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대한 내 기억이 모호하다. (R)					

(공유하기 (한국판 기억 경험 질문지 중 하위척도) = 사회적 공유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이 기억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자주 나눈다.					
2.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나는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다.					
3.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한다.					
4. 나는 이 기억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다. (R)					
5. 나는 이 기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R)					
6. 나는 이 기억에 관해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 (R)					

(거리두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지금의 나는 그 기억속의 나와 다르다.					
2. 이 기억 속의 나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					
3. 그 기억을 회상하면, 나는 “저건 지금의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4. 그 기억 속에서 나의 행동은 평소 나의 성격과 일치한다. (R)					
5. 기억 속의 나는 지금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R)					
6. 그 기억은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나와 일치한다. (R)					

(정서가(=부정정서가)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 3= 가끔 그렇다 / 4= 자주 그렇다 / 5= 항상 그렇다)

	1	2	3	4	5
1. 그 기억의 전반적인 톤은 긍정적이다.					
2. 이 기억에서 묘사된 그 경험은 긍정적이다.					
3. 그때 내 느낌들은 긍정적이었다.					
4. 그 기억의 전반적인 톤은 부정적이다. (R)					
5. 이 기억에서 묘사된 그 경험은 부정적이다. (R)					
6. 그때 내 느낌들은 부정적이었다. (R)					